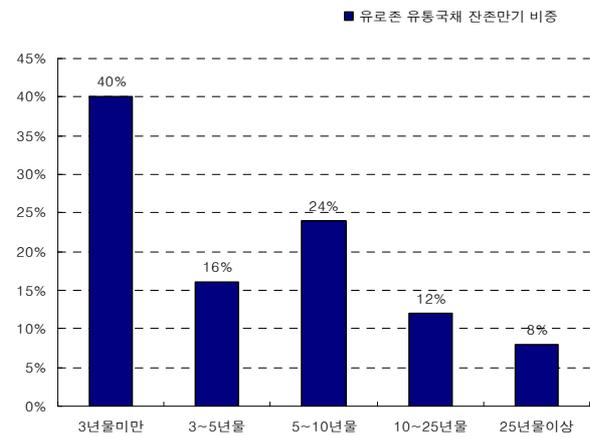


외국인 매수, 지금부터 시작이다

1. ECB QE시작. 어떤채권(만기)을 얼마나(금리)주고 살 것인가



■ ECB, 3월 9일부터 자산매입(국채포함) 본격 시행

- 1) 매입채권의 만기에는 특정가중치를 두지 않고, 2~30년물 국채의 발행잔액 비중대로 균등하게 매입하기로 결정
- 2) ECB(NCB) 채권매입 실행 시,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(최저금리)은 -0.20%로 제한. 이는 단기물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장기물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

2. 유럽계 자금유입 기대 유포. 경기민감주 비중 확대



■ 국내증시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 지속. 외국인 자금유입 강화에 대비, 경기민감주 대형업종 확대

- 1) 오는 9일부터, ECB의 본격적인 QE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, 국내증시에도 추가적인 유럽계 자금 유입이 가능할 전망
- 2)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에도, 미국계 자금의 순유입 기조는 계속 유지 중
- 3) 중국과 일본 역시 연내 추가적인 완화정책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, 중국과 일본계 자금 역시 순유입 기조가 지속될 것

3. 2월, 유럽계자금 본격 유입을 알리는 신호탄

□ 국가별 상장주식 순매수 동향 ('15.2월중)

(단위 : 십억원, 결제기준)

국적	'14년	12월	'15년	1월	2월
스위스	374	63	593	3	590
일본	3,196	188	403	132	271
미국	3,826	△667	313	63	250
독일	△747	△64	209	9	200
싱가포르	1,634	72	423	238	185
프랑스	△134	△107	274	93	181
버뮤다	170	57	△281	△192	△89
캐나다	△156	△92	△47	42	△89
네덜란드	299	80	△96	20	△116
룩셈부르크	△243	△251	△352	△158	△194
아랍에미리트	1,378	8	△235	23	△258
사우디	1,473	△264	191	471	△280
기타	△4,785	△954	△1,769	△1,693	△77
합계	6,285	△1,932	△376	△949	573

■ 장기간 순유출 기조로 일관하던 유럽계 자금이 2월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

- 1) 3월부터 실질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고, 2) 3低효과를 배경으로, 유로존의 경기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계 자금유입은 3월부터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■ ECB QE 본격 시행 국내증시 유럽계 자금유입 강도 강화될 것

■ 기존의 미국, 일본, 중국계 자금유입 기조 지속되는 가운데, 유럽계 자금 유입 더해지며 전반적인 외국인 매수강도 강해질 전망

■ 3월 KOSPI 밴드 1,980~2,100pt 유지. 외국인 매수강도 강화에 대비, 경기민감주 대형업종 비중확대

■ 멀티플이 저렴하고 턴어라운드 잠재력이 큰 업종을 선호

-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조선, 건설, 화학, 정유 등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길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